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군요

진병수/성상담, 성교육전문가

한 이케 고3 졸업생인데요. 나이가 들면 할 줄 알았던 생 관계를...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나이에 하게 되었습니다. 제 여자친구와는 아주 친해서 그 애의 생리주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그 애의 생리 날짜가 지났는데도 여자친구가 생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내는데 저는 계속 불안하고 만약에 임신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신이면 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가르쳐주세요. 임신이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휴...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임신이면 낳으면 안되는데, 어떻게 하죠???

자 신이 정해 놓았던 시기보다 일이 빨리 벌어진 것에 대해 자기 스스로 당황해 하고 있군요. 여자친구에 대한 걱정보다 자신의 앞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아직은 실감나지 않고 어떻게든 이번 고비를 잘 넘기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겠죠. 그 심정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당사자인 여자친구는 겉으로 보기에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더 초조하고 걱정이 앞선다는 것은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의 표현이겠죠.

현재 여자친구가 아무런 표현을 안한다고 하니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자친구와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한 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생리할 때가 지나지 않았는지, 몸에

어떤 이상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즉, 임신이라면 말이지요. 이런 대화부터 시작하세요. 공연히 혼자 조바심 내지 말고요.

임신을 하면 안 된다고 했죠. 즉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어째서 아기를 낳으면 안되나요.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아기 아버지가 되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기에 그렇겠죠.

아니랍니다. 일찍 아버지가 된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목표나 앞날의 계획을 수정해야 할지 모르지만...

예정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절망하고 자신의 앞날에 검은 구름이 끼는 것은 아니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계획대로 정해진 길로만 갈 수는 없겠죠. 때로는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야 할 때가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고비를 맞기도 하죠. 엉뚱한 일이 일어나 좌절을 겪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아직 확인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신여부를 확인 한 후에...

그리고 쉽게 아버지가 될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지금 결과를 예측해서 충분히 고통받고 있지만)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한 이후에 그래도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신에게 이 해시킨 다음, 그런 아픔이 있고 난 다음에 결정하세요.

